

2021년 한국교회,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가장 들끓어!

한국교회탐구센터는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2019년부터 3년째 온라인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2019년에는 ‘목회자 성범죄’, ‘전광훈 현상’, ‘동성애’, ‘명성교회’, ‘신천지’가 5대 이슈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신천지’, ‘전광훈 목사’, ‘목사 범죄’가 4대 이슈였다.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의 한국 교회 4대 이슈를 분석했는데, 그 중 ‘코로나 집단감염’과 ‘방역 수칙 위반’ 2개가 이슈로 선정된 것을 보면 2020년에 이어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회자 범죄(성범죄)’도 이슈로 꼽혔는데 이 이슈는 3년째 빠지지 않고 올라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슈였다.

하지만 2021년에 기독교가 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온갖 비난을 받게 한 가장 큰 이슈는 2건의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다. 한 사건은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고도 불리웠고, 또 다른 사건은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불리웠는데 이 두 사건은 교회에 대한 질타를 넘어서서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2021년 최악의 이슈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126호에서는 2022년 새해 첫번째 주제로 지난 한해를 결산하려는 의미에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2021년 한국교회 4가지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요

2021년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 주요 키워드를 부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국 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을 실시함

1. 조사 주체 : 한국교회탐구센터
2. 분석 기간 : 2020년 12월 ~ 2021년 11월(12개월)
3. 수집 채널 : 네이버카페, 네이버뉴스,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
4. 수집 키워드 : 기독교, 교회, 목사
5. 데이터 수집량 : 총 1,256,518건(중복 포함)
(기독교 221,863건, 교회 731,158건, 목사 303,497건)
6. 데이터 수집 : API를 활용한 웹 크롤링 방식(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7. 자료 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8. 자료 수집 : 주)골든플래닛(TousFlux)

• 용어해설

버즈량 : 특정 주제에 대한 웹상의 확산 지표

본문 수 : 특정 기간 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글의 수

댓글 수 : 특정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수

조회 수 : 특정 게시글을 조회한 수

연관어 :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글(혹은 댓글)을 형태소로 쪼갠 후 유의미한 단어들을 추출한 언어

감성 분석 : 게시글 혹은 댓글의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형태소별로 긍정, 중립, 부정 점수를 계산한 후 합산한 값. 즉 특정 이슈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긍정 글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부정 글로 분류함.

01

2021년 한국 교회, 입양아 학대 등 다양한 이슈가 온라인 여론 주도

2021년 가장 큰 단일 이슈 : 입양아 학대

- ▶ 2021년 한 해의 가장 큰 단일 이슈는 ‘입양아 학대’라고 할 수 있다. 입양아 관련 이슈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베이비박스 관련 이슈였지 입양아를 직접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벌어진 두 사건 모두 기독교인 양부모가 어린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사망하도록 만든 사건으로 잔인성뿐만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양부모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었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부끄럽게 한 사건이었다.
- ▶ 1월 월간 버즈량은 131,956건으로 가장 높은 월별 버즈량을 기록하였는데,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안산Y교회 미성년자 착취 사건, IM선교회 집단감염,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및 검사 비협조 등 주요 사건이 몰리면서 버즈량이 증가했다. 특히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48,931건)은 단일 이슈로는 최대 버즈량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 ▶ 7월 월별 버즈량은 평균에 가까운 99,075건이었으나 또 다른 입양아인 허민영 학대 사망 사건이 47,902건으로 약 절반에 해당하는 버즈량을 기록했다. 이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이어 단일 이슈로는 두 번째로 높은 버즈량이었다.

목회자 범죄

- ▶ 목회자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은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2019년 이후 해마다 끊이지 않는 유일한 이슈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집단감염

- ▶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작년에는 집단감염이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기독교 관련 기관(IM선교회, BTJ열방센터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 ▶ 집단감염은 2월 이후에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집단감염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여 각 교회에서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과 더불어 전체적인 집단감염이 다른 곳에서(학교,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단의 온라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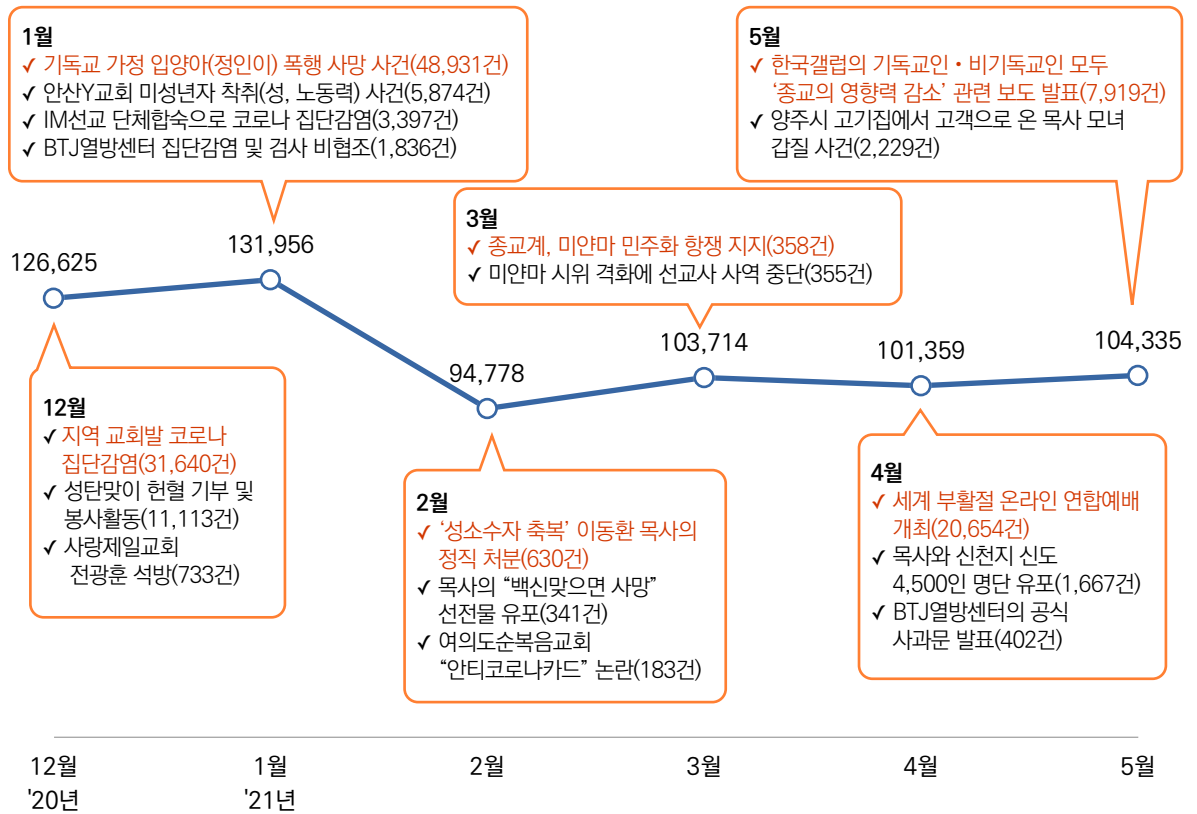
- ▶ 4월 ‘세계 부활절 온라인 연합예배 개최’ 버즈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슈는 구원파 계열인 박옥수가 개최한 행사였다. 이 행사를 홍보하는 글을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올리고 퍼날랐는데, 2019년에 ‘신천지’가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전체 버즈량에서 8%나 되는 비중을 차지한 것과 연관시켜 보면 이단 종파가 온라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민주화 항쟁

- ▶ 3월 ‘미얀마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독교계의 지지’는 언급량은 많지 않지만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교회의 연대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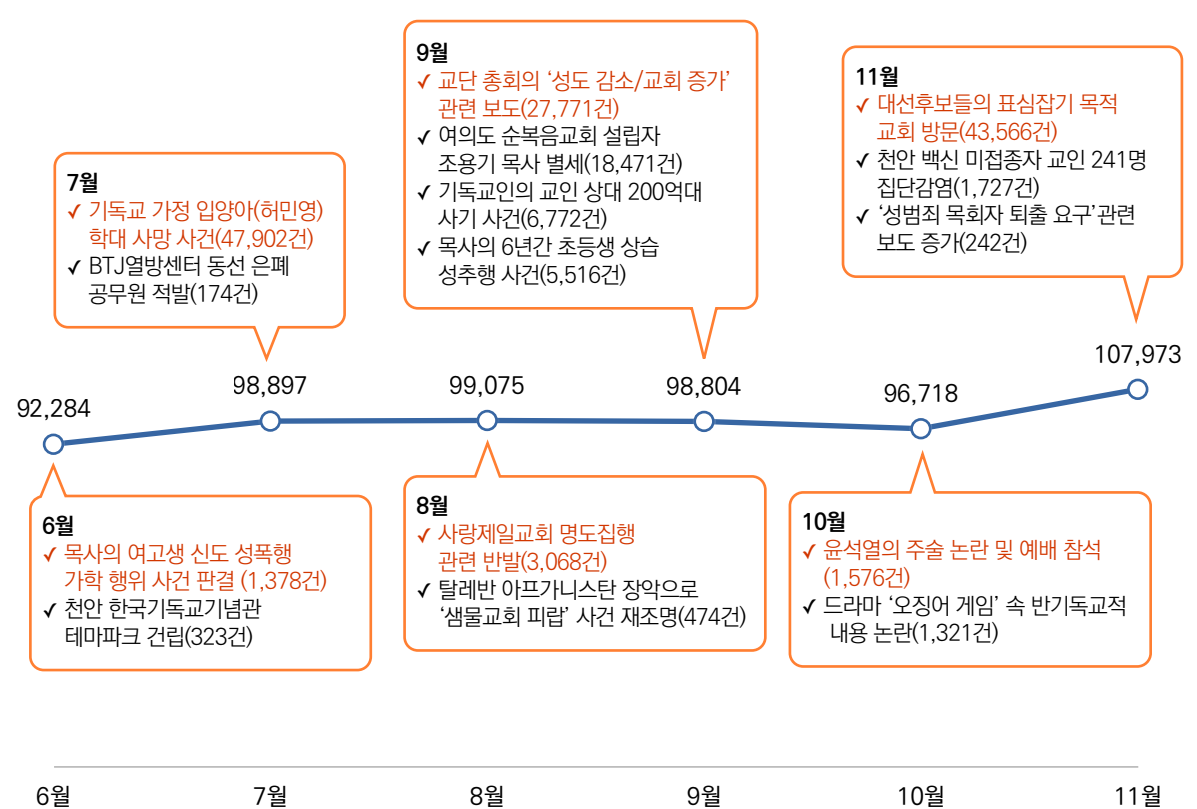
[그림] 2021년 월별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 (상반기 주요 이슈)

(단위 : 건)



[그림] 2021년 월별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 (하반기 주요 이슈)

(단위 : 건)



02

4대 이슈 도출

채널별 이슈 분포 분석



✓ 전체 통계량은 코로나 집단감염(170,368건) > 목회자 범죄(131,734건) > 방역수칙 위반(119,808건) > 입양아 학대(36,809건) 순
 *각 채널 전체 데이터에서 주요 이슈로 검색한 수치이며, 중복제거하지 않음(이슈 간 겹치는 데이터 있을 수 있음)
 **주요이슈 외에 일반적인 기독교적 단어 즉 예배, 성경, 나눔 등은 여기서 제외시켰음.



4대 이슈

순위	주요 이슈	비중(전체 대비)
1	코로나 집단감염	14%
2	목회자 범죄	11%
3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	10%
4	입양아 학대	3%

✓ 채널별로 전체 게시물 중 비중이 큰 이슈를 각각 도출 후, 종합 주요 이슈 도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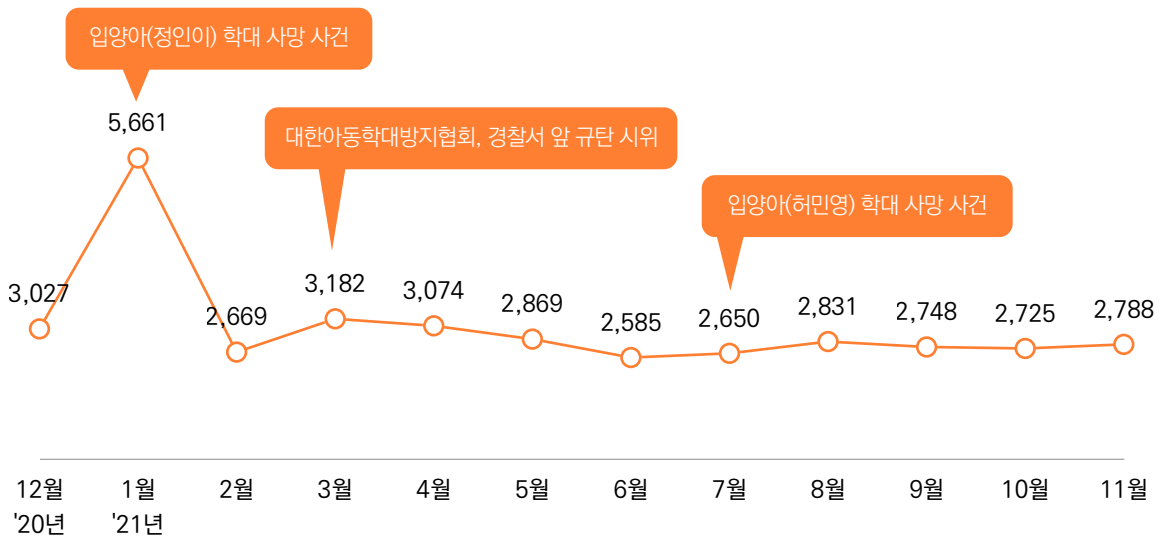
03

주요 4대 이슈 I - 입양아 학대 사건

- ▶ 2021년에는 기독교 가정 내 입양아 학대 및 사망 사건이 크게 두 차례 발생했다. 특히 1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의 정도가 살인에 해당할 정도로 끔찍했던 점 △양부모가 모두 목회자 자녀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점 △양부모의 가족과 교회 관련자들이 가해 양부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 ▶ 7월에는 일명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허민영 사건'이 발생했는데, 역시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기독교인 입양 가정에 대한 부정 여론이 심화되었다.

[그림] 입양아 학대 사건

(단위 : 건)



[입양아 학대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수많은 아동 학대 중에도 정인이는 어려도 너무 어리고...
9개월 동안 힘들었을 아이 생각에 역장이 무너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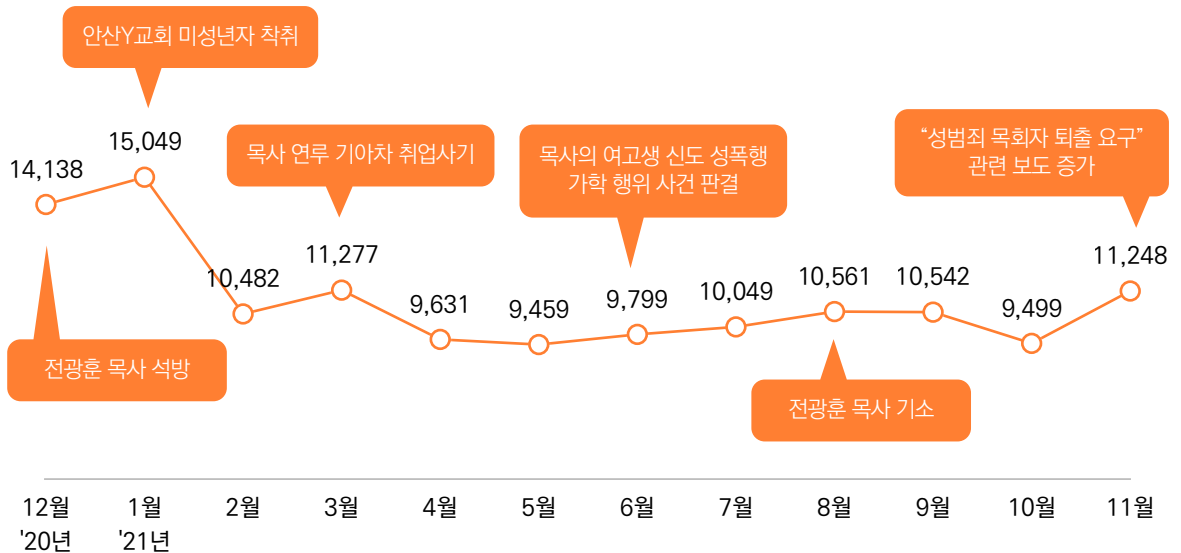
“온갖 악행 다 해놓고 죽기 전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나요?
현생에서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나요? 정인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양이 되어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은
그럼 하나님도 모른 채 죽었으니 천국 못 가는 건가요?”

◎ 주요 4대 이슈 II – 목회자 범죄

- ▶ 1월 안산Y교회 미성년자 착취(성, 노동력) 사건을 비롯해, 3월 목사가 연루된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사건, 6월 목사의 여고생 신도 성폭행 및 가학 행위 사건 판결 등 목회자가 미성년자 및 20대 여성 교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착취, 사기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 목회자 퇴출 요구' 관련 보도가 증가했다.
- ▶ 목사의 성범죄는 관계적 힘의 우위에 선 목사가 그 힘을 이용하여 저항할 힘이 없는 어리고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분노와 질타를 받았다.
- ▶ 목사의 성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어쩌다가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목사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기독교의 문제라고 비난받고 있다.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부 목회자가 백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석방 및 기소 관련 보도도 많았다.

[그림] 목회자 범죄

(단위 : 건)



[목회자 범죄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순진한 아이들 꼬셔서 인생 망치게 하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교회 목사라는 탈을 쓰고 목사도 아닌 인간이 온갖 착취를 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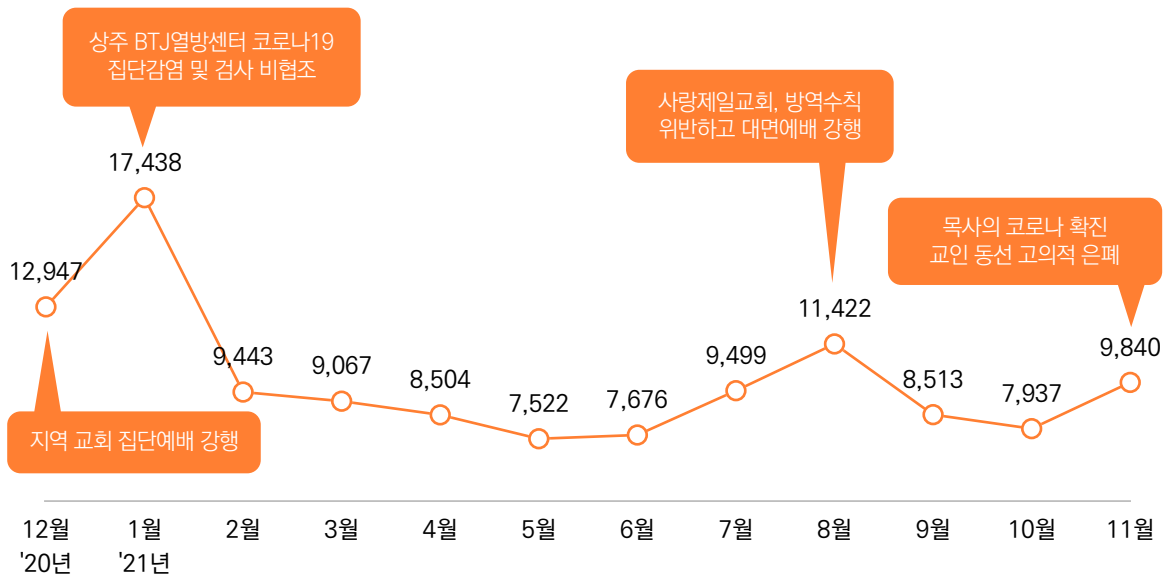
“목사의 꾸준한 범죄, 이 정도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

◎ 주요 4대 이슈 III -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

- ▶ 사랑제일교회, 상주 BTJ열방센터, 지역 교회 등이 방역위법행위를 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2020년에는 교회에서 단순히 집단감염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사회적 이슈였으나, 2021년에는 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다.
- ▶ 방역수칙 위반은 확진 사실, 확진자 동선 등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부터 예배와 관련된 당국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점차 단순 집단감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반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생긴 집단감염에는 더 큰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는 현장예배를 강행하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및 개천절 집회를 진행하여 코로나 확산 원인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 반면 2021년 05월의 부정 비율의 감소는 전광훈 옹호 게시글이 의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기인한다.

[그림] 방역수칙 위반

(단위 : 건)



[방역수칙 위반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교회 강제 명령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단인거 같네요.
아이들 데리고 재롱잔치까지 했다는데...교회를 막아야 하는게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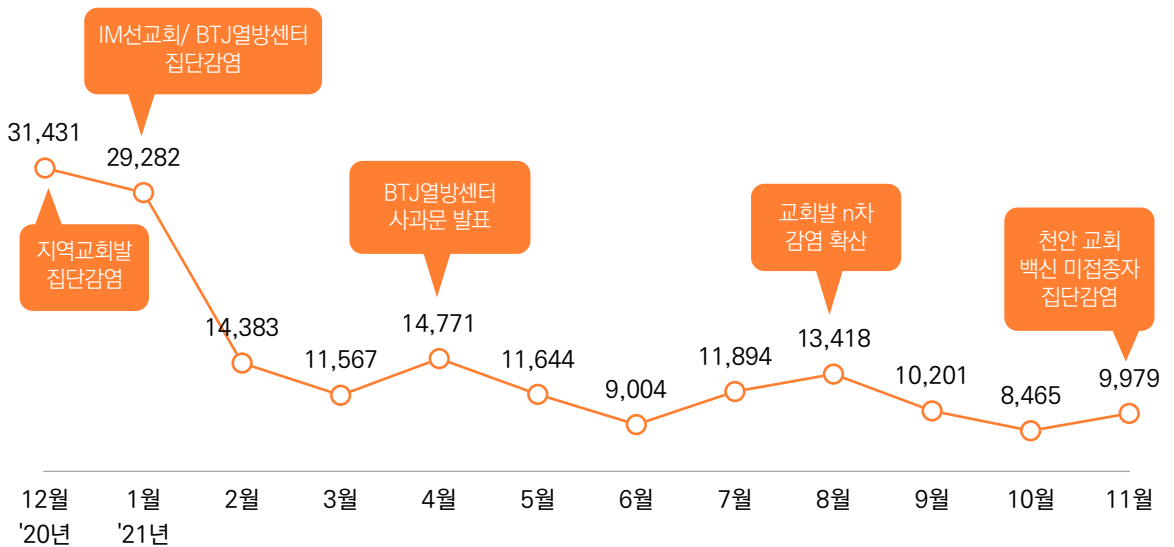
“하나님이 아무렴 이런 전염병으로 신앙을 판단하시진 않으실텐데...
어찌 저런 현혹하는 말들로 예배를 종용하는지...”

◎ 주요 4대 이슈 IV – 코로나 집단감염

- ▶ 2020년 12월 지역 교회발 집단감염, 2021년 1월 IM선교회/BTJ열방센터 집단감염, 8월 교회발 n차 감염 확산, 11월 천안교회 백신 미접종자 집단 감염 등 2021년에도 지역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 ▶ 교회발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교회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는 여론이 많았다.
- ▶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그 후에도 교회를 통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다.
- ▶ 2020년 1월 일반 국민의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였는데 1년 후인 2021년 1월에는 21%로 1년 사이에 무려 11%p가 감소했다. 이렇게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넘버스 82호 참조할 것)

[그림] 코로나 집단감염

(단위 : 건)



[코로나 집단감염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최근 확진자가 교회발이 많네요. 너무 화납니다, 교회발!”

“○○교회는 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 한마디가 없나요?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지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은 믿으면서 예배는
꼭 대면예배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04

3년 연속 이슈, 목회자 범죄 - 최근 3년간 2021년 언급량 가장 많아

- ▶ 2019년~2021년 3년 연속 주요 이슈는 목회자 범죄가 유일했는데,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지속 발생하여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신뢰 하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2021년이 목회자 범죄 언급량이 가장 많았다.
- ▶ 목회자 성범죄는 젊은 여성, 여학생 및 아동 등 교회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서 사회적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다.
- ▶ 2020년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주요 이슈였다면, 2021년에는 성범죄가 엽기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 비난을 받았다.
- ▶ 1월 안산Y교회의 목사 부부가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고소당했는데, 목사는 이들을 초등학교때부터 20년 이상 성착취를 한 것은 물론 그 행위를 동영상 촬영했고, 돈을 벌어오게 해서 노동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현금하지 못하면 서로를 때리거나 얼굴에 똥을 바르게 하는 등의 행각을 저질렀다.
- ▶ 6월에는 여고생을 성폭행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믿기 힘든 사건도 일어났다.
- ▶ 2019년과 2020년과 2년 연속 이슈는 신천지와 전광훈 목사였다. 신천지는 2019년에는 포교 활동으로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이슈화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 ▶ 전광훈 목사는 2019년에는 반 문재인인 기수라는 정치적 상징으로 이슈가 되었다면, 2020년에는 코로나 집단 확산 집회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비난을 크게 받았다.
- ▶ 2020년과 2021년의 동일 이슈는 집단감염이었는데, 교회발 코로나 감염 확산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비판 여론이 지속되었다.

[표] 2019년 ~ 2021년 주요 이슈 비교 분석

	주요 이슈	비중(전체 대비)
2019년	신천지	10%
	동성애	3%
	전광훈 목사	2%
	명성교회 세습	1%
	목회자 범죄	1%
2020년	코로나19 확산	21%
	신천지	6%
	전광훈 목사	6%
	목회자 범죄	4%
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	14%
	목회자 범죄	11%
	방역수칙 위반	10%
	입양아 학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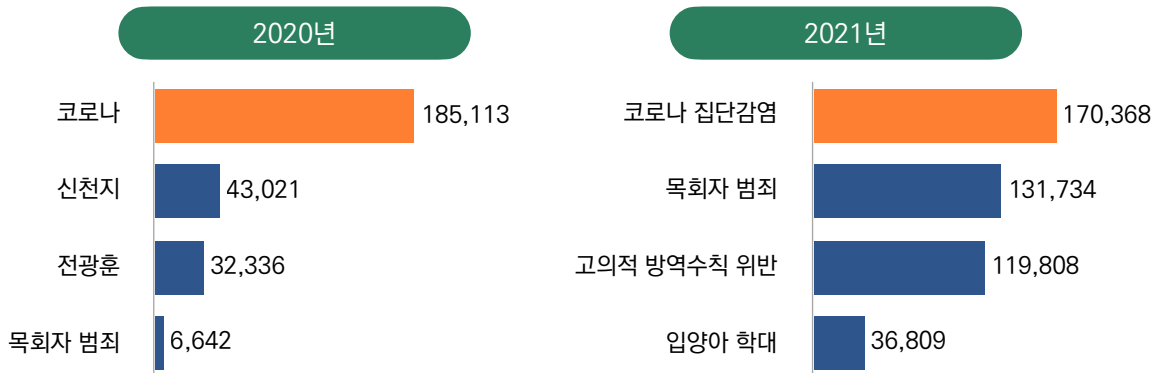
05

한국교회 온라인 여론 상 가장 큰 이슈, ‘코로나 집단 감염’!

- ▶ 4가지 이슈 가운데 온라인 여론 상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집단 감염’(17만 건)이었다.
- ▶ ‘코로나 집단 감염’은 2020년에는 압도적 이슈였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 집단 감염’ 외에도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특히 목회자 범죄(성폭력 등)가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 또한 2021년에는 단순한 코로나 집단 감염을 넘어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점에서 2020년과 차이가 있다.

[그림] 이슈별 본문 수

(단위 : 건)



*수집채널 :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관심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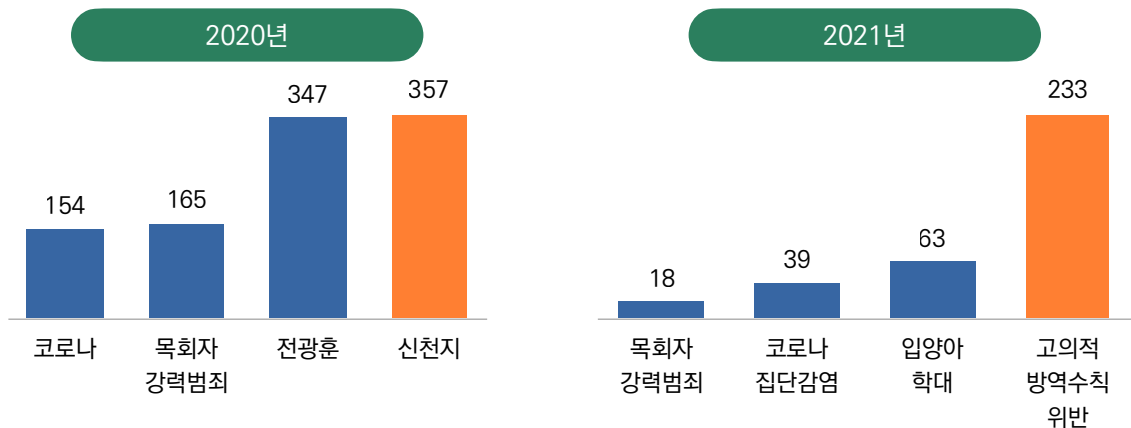
- ▶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조회수 분석에서는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이 본문 1건 당 조회수 233건으로 나머지 이슈에 비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단순 집단감염 보다는 교회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관심도(조회 수/본문 수)

(단위 : 건)

[그림] 관심도(조회 수/본문 수)

(단위 : 건)



*수집채널 : 네이버 카페

◎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가장 들끓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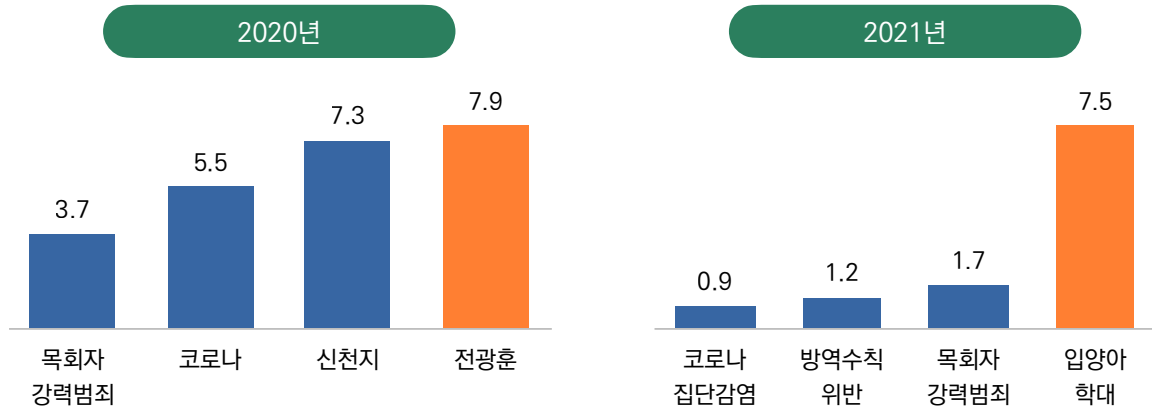
- ▶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댓글수 분석에서는 ‘입양아 학대’가 본문 1건당 댓글수 7.5건으로 나머지 이슈에 비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 ▶ ‘입양아 학대’ 사건은 단순 버즈량은 가장 낮았으나 참여도에서 1위, 관심도에서 2위를 차지하여 2021년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참여도(댓글 수/본문 수)

(단위 : 건)

[그림] 참여도(댓글 수/본문 수)

(단위 : 건)



*수집채널 :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2020년 한국 교회 온라인 여론은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되었다면, 2021년에는 코로나가 여전히 큰 이슈였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외의 이슈로 다양해졌다. 그 가운데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킨 것은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1월 초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등을 통해 전국을 경악시킨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숨을 거둔 사건이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사망 폭행 이전에도 잦은 학대가 있었는데, 공소장에는 총 8가지의 폭행 혐의가 적시되었다.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5개월 사이에 학대가 집중되었고, 특히 마지막 3번째 아동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2019년 9월 이후부터 학대의 강도가 더 세졌다고 한다.

정인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인 2021년 5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당시 2세였던 여아(허민영)가 자신의 양부에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뺨을 여러 차례 구타당해 뇌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되어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 왔다. 아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2021년 7월 11일에 2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병원이 아이의 죽음을 아동 학대의 결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혈연에 의한 가족 관계를 중시하므로 입양을 꺼리는 문화이다.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이 더 많았는데 2007년부터는 국내 입양아가 더 많아져 2019년 현재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 비율이 55 대 45 정도가 되었다. 입양하는 경우도 순전히 입양을 원해서 하는 부모는 소수이고, 80% 이상이 난임과 불임을 경험한(즉, '되도록이면' 자기 자식을 낳으려 했지만 하다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택한)사람들이다.

그러면 앞의 두 가정은 어떤 환경이었을까? 정인이 가정에는 이미 친딸이 있었고, 허민영 가정에는 친자녀가 4명이나 있었다. 우리나라 입양 가정의 일반적

행태와 달리 두 가정은 친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입양했다는 점은 칭찬받을만 하다. 또한 두 자녀 입양이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도 있다. 정인이 양부모는 결혼하기 전 교체할 때부터 입양을 계획해서 정인이를 입양했으며, 민영이 양부모는 부부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민영이가 안쓰러워서 입양했다고 진술했다.

선한 마음으로 입양을 계획하고 결정한 양부모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을까? 입양 때 그들의 선한 마음은 가짜일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 행동일까? 반려견이 귀여워서 입양했다가 싫증이 나거나 버거우면 파양하는 것처럼 선한 마음이 변질된 것일까? 한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모는 입양 사실을 주변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 입양했어요'라고 먼저 알리는 행동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 '자랑'에는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여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욕망 가운데서 인간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으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우선한다는 데서 인간의 이중적 모습이 나타난다. 종교적 행위, 선한 행위가 오히려 욕망의 도구가 되어 자신을 찌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 속에 있는 이중성을 발견하는 자기 성찰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는 기도할 때에 큰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금식할 때에 일부러 금식하는 티를 내는 사람들처럼 되기 쉽다. 인간의 자기 이중성을 발견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 이 지점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공적역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95호(2021. 5. 14), 14쪽
2) 나무위키, '입양'(<https://namu.wiki/w/%EC%9E%85%EC%96%91>)
3) 그것이 알고 싶다 비하인드, '정인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n67jYELlp_g)